

MEG, 3월 톤당 100달러 폭등!

내수가격 12만원에 Local 100달러 상승 ... ACP도 800달러 넘어

MEG(Ethylene Glycol Monomer) 3월 Asia Contractive Price가 톤당 850달러로 전월대비 100달러 폭등했다. ACP가 100달러 폭등함에 따라 MEG 내수가격도 산업용이 톤당 12만원, 로칼 판매되는 화학섬유용은 100달러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MEG 생산기업 관계자는 “3월 가격이 나프타(Naphtha)과 에틸렌(Ethylene) 등 원재료 가격폭등에 따른 것이지만 Down Stream에서 인상폭이 쉽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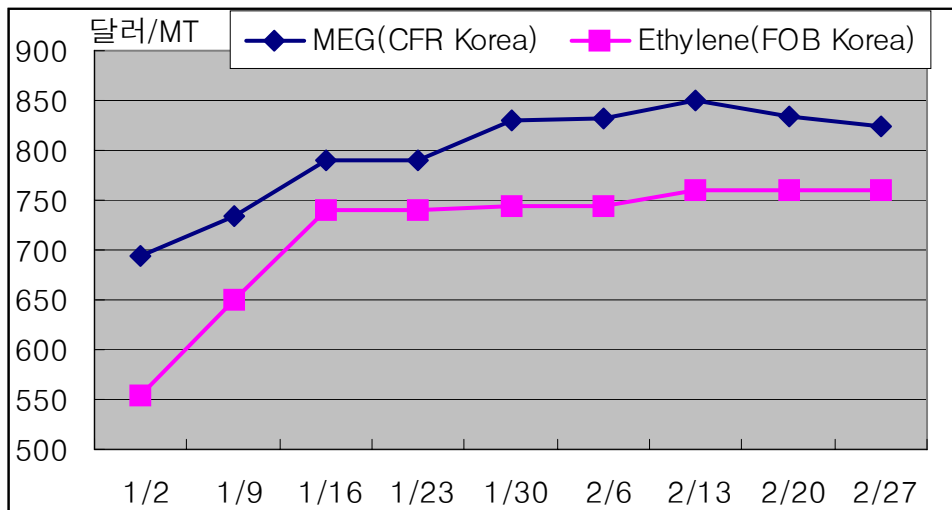
ACP는 아시아 지역의 MEG 거래를 위해 네트되는 가격으로 국내에서는 화학섬유용이 10달러 이상 빠진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내수용으로 분리되는 산업용은 톤당 3만-5만원정도 높은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화학섬유용 MEG는 과거부터 화학섬유기업들의 Bargening Power를 가지고 있어 MEG 생산기업들이 주도로 가격을 인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섬유 생산기업들도 2월 50달러, 3월 100달러 상승함에 따라 원재료 가격폭등에 따른 마진을 하락으로 생산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MEG는 세계적인 공급타이트로 2003년 원재료 가격폭등 이전에도 수급에 따른 가격강세가 예상됐는데, 3월 850달러에 거래됨에 따라 2003년에 예상됐던 톤당 700달러대를 넘어섰다.

MEG & Ethylene 가격추이



그러나 MEG 생산기업 관계자는 “1-2월 MEG Spot 가격이 1월30일부터 800달러를 넘어섰고, ACP 가격이 Spot 시장과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어 800달러대 거래는 예상됐다”고 밝혔다. <김동민 조사기자>

<Chemical Journal 2004/03/11>